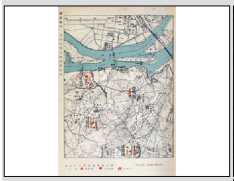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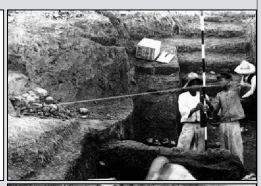
http://doi.org/10.20292/jcich.2026.51.141



일제강점기 평양 낙랑고분의 발굴조사와 그 결과의 활용

Excavation of the Nangnang Tombs in Pyeongyang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Use of Its Findings

김 해 경 건국대학교 조교수
김 선 불교문화유산연구소 연구관

Ⅰ. 서론

Ⅱ. 일제강점기 발굴 주체의 변천

Ⅲ. 일제강점기 식민지적 위계가 적용된 발굴 전개 양상

Ⅳ. 일제강점기 발굴 이후 낙랑 유구를 대하는 태도

Ⅴ. 결론

이 논문은 (재)중앙문화유산연구원의 2026년도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되었음.

국문요약

일제강점기 평양 낙랑고분군 조사는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근대적 발굴'의 대표적 사례이다. 발굴 주체는 세키노 다다시의 초기 조사에서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위원회 · 고적조사과, 외부 자금이 투입된 발굴, 조선고적연구회로 단계적으로 변화하였다. 발굴 과정에서는 일본인이 조사와 실무를 주도하고 조선인은 주로 인부로 참여하는 위계적 분업 구조가 나타났다. 조사자들은 측량과 시굴을 통해 조사 범위를 설정하고 유구의 확인에 따라 발굴을 확대하였다. 출토 유물은 수리와 정리를 거쳐 평양부립박물관과 조선총독부박물관 등에 전시되었고, 일부는 일본으로 반출되어 관리되었다. 한편 고분의 학술적 가치가 부각되면서 도굴과 도난도 증가하였으며, 총독부와 조사기관은 울타리 설치 등 물리적 통제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보호와 관리가 강화되는 가운데에도 유구와 유물이 공공의 문화유산으로 편입되는 공공화와, 사적 소유와 거래의 대상이 되는 사유화가 병존하였다. 또한 낙랑고분군은 박물관 전시와 관광지도 · 안내서 · 대중서적 등을 통해 대중에게 소개되면서 관람과 소비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문화유산의 대상화는 낙랑에 대한 일제의 규정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결국 낙랑고분군의 발굴은 단순한 고고학적 조사를 넘어 발굴 · 보존 · 전시 · 출판 · 관광을 상호 연계하여 낙랑을 식민지적 지식과 문화유산 체계 속에 편입시키는 과정이었다.

주제어 : 낙랑고분군, 고적조사, 근대적 발굴, 도굴과 도난, 문화유산의 대상화

Ⅰ. 서론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발굴(發掘)'은 "땅속이나 큰 덩치의 흙, 돌 더미 따위에 묻혀 있는 것을 찾아서 파냄"으로 정의된다. 근래 고고학 분야의 발굴은 학술적 가치를 규명하기 위한 발굴조사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존 · 복원 · 활용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종합정비계획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는 우리에게 발굴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했다.『한국고고학사전』은 최초의 발굴조사로 1909년 평양 석암리 고분을 거론한다. 일본 연구자들이 실시한 조선고적조사는 1902년 세키노 다다시(關野貞)의 조사였다. 그렇다면 발굴은 어떠한 주체에 의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는가? 발굴된 유구는 어떻게 처리되었으며, 애초에 그곳에 유구가 매장되어 있음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그리고 발굴된 장소는 이후 어떻게 보존되었으며, 혹여 활용된 사례가 있었는가에 주목했다. 이에 일제강점기 발굴 주체, 발굴의 전개 양상, 발굴 이후 발굴 유구를 대하는 태도와 발굴지의 보존 및 활용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대상지는 평양 낙랑고분군이다. 낙랑고분군은 1909년 석암리 조사 이후 해방 이전까지 비교적 꾸준히 발굴조사가 이어진 사례로서, 일제강점기 발굴의 제도적 체계, 현장 운영의 실제, 그리고 그 영향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에 적합한 대상지라 할 수 있다. 또한 발굴 유구는 전시와 책자 발간, 관광 대상지로 홍보되어 발굴 유구의 대중적 소비와도 맞닿아 있다.

일제강점기에 진행된 낙랑고분과 관련된 기존 연구는 주로 고분에서 출토된 유구 및 유물 자료를 토대로 낙랑문화를 해석하는 방향에서 축적되어 왔다(강현숙: 2007; 김근식: 2017; 김성한: 2024; 양은경: 2021; 이경미: 1992; 오영찬: 2008; 오택현: 2022; 윤용구: 2010; 이나경: 2021, 정인성: 2004, 2011; 조윤재: 2017; 주경미: 2015). 이 가운데 낙랑고분 벽화에 대한 연구로는 안정준(2021), 이유리(2017), 조우연(2008)이 있고, 이장(移葬) 문화에 대해서는 高久健二(2000)의 논의가, 낙랑의 지배층과 관련된 주요 구성원에 대해서는 여호규(2009)의 연구가 있다. 한편 발굴과 관련하여 발굴 주체와 발굴 시기를 구분하고 그 성격을 검토한 연구로는 오영찬(2004, 2013)과 정인성(2006, 2011)이 주목된다. 특히 오영찬의 시대 구분은 참고할 만하나, 고적조사과와 조선고적연구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3기로 설정함으로써 시기 구분의 기준이 특정 기관에 집중했다. 이처럼 선행연구를 보면 대체로 출토 유구

의 유형화와 편년, 그리고 이에 기반한 시대 해석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발굴 과정에서 조선총독부와의 제도적 · 행정적 연계뿐 아니라,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발굴 조사의 양상을 포괄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더군다나 발굴 이후 유구에 대한 처리 과정과 대중화에 대한 언급은 도외시 되었다. 이처럼 발굴의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동안 낙랑고분군과 관련하여 작성된 각종 보고서와 책자, 국립중앙박물관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일제강점기 관련 서류, 그리고 일제강점기 낙랑고분군 관련 대중서, 당시 미디어인 신문기사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때 신문기사는 공문에 의한 공식적 내용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을 경우 시대적 상황을 검증하는 자료로 활용했다. [표 1]에 제시한 문헌군은 일제강점기 낙랑고분군 조사 성과를 정리한 발굴 보고서 및 간행물로서, 출토 유구의 분석에 국한되지 않고 조사 참여자, 공정표, 발굴 수행 과정 등 현장 운영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크다. 해당 문헌에 수록된 지도, 작도 도면, 현장 사진과 같은 도상자료는 당시 발굴 현장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게 하는 자료이다.

[표 1] 평양 낙랑고분군 발굴 보고서와 관련 문서

no	명칭	발간연도	발행처	비고
1	『(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	1917년	京城: 朝鮮総督府	
2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1920년	京城: 朝鮮総督府	
3	『古蹟調査特別報告. 第1-2册』	1919년	京城: 朝鮮総督府	
4	『古蹟調査特別報告.第4册.樂浪郡時代の遺蹟(本文)』	1927년	朝鮮総督府	
5	『樂浪』 樂浪 昭和 5	1930년(昭和 5年)	東京帝國大學 文學部 刀江書院	
6	『樂浪彩篋冢; 樂浪王光墓. 1-2』	1934년	朝鮮古蹟研究會	
7	『樂浪彩篋塚』	1934년(昭和 9年)	朝鮮古蹟研究會	
8	『樂浪遺跡(古蹟調査槪報, 昭和8年度)』	1934년(昭和 9年)	朝鮮古蹟研究會	
9	『樂浪遺跡(古蹟調査槪報, 昭和9年度)』	1935년(昭和 10年)	朝鮮古蹟研究會	
10	『樂浪遺跡(古蹟調査槪報, 昭和10年度)』	1936년(昭和 11年)	朝鮮古蹟研究會	
11	「古蹟調査報告. 第1册. 平安南道 大同郡 大同江面 梧野里 古蹟調査報告』	1935년	京城 : 朝鮮総督府	
12	『樂浪古蹟案內』	1928년	私立三惠學校	
13	「平壤府立圖書館要覽」	1931년	『平壤府立圖書館要覽』	
14	『陳列品繪葉書』	-	『平壤府立圖書館要覽』	

특히 유리건판 사진은 발굴 현장에서 사용된 도구와 작업 양상을 식별하여 추출하였으며, 보고서의 서술 및 도면 정보와 대조하여 자료 간 정합성을 점검하였다. 또한 박물관 진열 목록은 발굴 유구를 어떠한 관점으로 수집하여 선별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낙랑고분군에 대한 대중서의 내용 분석은 일제가 낙랑고분군을 어떻게 해석하고 홍보했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수행된 '발굴'은 단순한 유물의 물리적 수습 행위가 아니라, 당시의 법령과 행정 절차, 학술적 기준에 따라 조직되고 실행된 제도적 행위였다. 특히 식민지 조선에서 이루어진 발굴은 관련 법령과 행정체계의 규정 아래 조사 대상의 선정, 조사 방법, 유물의 처리와 관리 등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발굴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식민지 조선에 근대 고고학의 제도와 방법이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작동했는지를 살펴보는 실증적 접근으로 의의가 있다.

Ⅱ. 일제강점기 발굴 주체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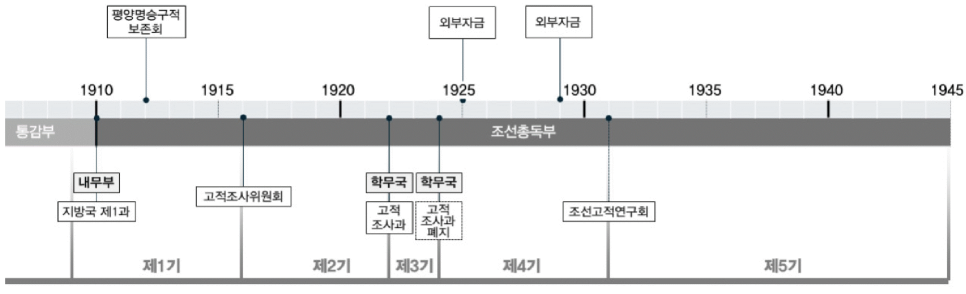
1. '근대적 발굴' 개념의 도입과 식민지 조선의 고고학

발굴은 18세기 이전, 단순한 호기심에 기반한 골동품 수집(antiquarianism)의 단계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19세기에 이르러 지질학의 층위학(stratigraphy) 원리와 톰센(Christian J. Thomsen)의 삼시대법(Three-Age System)이 도입되면서, 발굴은 비로소 과학적 조사로서의 기틀을 갖추게 되었다(Colin Renfrew & Paul Bahn 2016: 35~40). 20세기 초에는 휠러(Mortimer Wheeler)와 케니언(Kathleen Kenyon) 등에 의해 격자 발굴법(grid method) 등 정밀한 조사 기법이 정립되었고, 1949년 리비(Willard F. Libby)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radiocarbon dating) 발명은 연대 결정의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기술적 전환점이 되었다(Brian Fagan 2004: 45~48; 이선복 2012: 210~215). 더 나아가 1960년대 이후 빈포드(Lewis R. Binford)를 중심으로 과정주의 고고학이 대두하면서, 발굴은 단순한 유물 수습 행위를 넘어 고대 사회의 문화 변동 과정을 설명하는 종합적 과학 연구로 확장되었다(Bruce G. Trigger 2006: 394~400).

한국의 발굴 역사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식민 지배의 명분을 구성하기 위해 낙랑 및 신라 고분을 중심으로 조사를 수행하면서 타율적으로 전개되었다(김원용 1986: 12~14)고 평가받는다. 해방 이후 1946년 경주 호우총 발굴을 계기로 비로소 한국 주체에 의한 최초의 학술적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하나의 분기점을 이룬다(한국고고학회 2010: 23). 1970년대에는 무령왕릉과 천마총 등 국가 주도의 대규모 발굴을 통해 조사 역량이 축적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 개발과 함께 구제발굴(rescue excavation)이 보편화되면서 유적 조사 건수는 크게 증가하였다(최병현 2008: 8~10; 이선복 2012: 245~248). 2010년대에는 관련 법령의 정비와 과학적 분석 방법의 심화가 병행되면서, 현재는 보존과 연구를 위한 전문적 · 체계적 발굴 시스템이 정착한 것으로 인식되었다(문화재청 2011: 4~9). 이처럼 발굴에 관한 논의는 대체로 해방 이후의 전개에 집중되어 왔다. 일제강점기에 발굴은 지속적으로 수행되었고, 당대의 제도적 체계와 사회 · 행정적 조건, 그리고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다양한 발굴 도구가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근대적 발굴'은 일제강점기 낙랑고분군 조사에서 허가, 예산, 인력 및 공정 편성 등 법과 행정 절차에 의해 발굴이 조직되고 집행된 체계를 의미한다. 또한 발굴은 조사 설계에 따라 층위와 유구 단위를 구분하여 계획적으로 수행되는 굴착을 전제로 한다. 현장에서는 도면 · 지도 · 사진 · 일지 등 기록을 통해 출토 위치와 상호 맥락을 보존 · 재현할 수 있어야 하며, 정리 · 분석 및 보고서 편찬을 통해 조사 결과가 공유되어 재검증 가능한 지식으로 전환되는 과정까지를 포함한다.

이에 본 연구는 낙랑고분군 발굴의 전개를 발굴 주체의 변화를 기준으로 시기별로 구분하고, [그림 1]과 같이 각 시기별 변화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정리하였다.



[그림 1] 발굴 주체의 시기별 변천

2. 제1기 : 식민지 행정체계의 정비와 초기 발굴(1909~1916)

1909년 평양과 경주에서 고고학 연구자에 의해 최초의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다만 해당 조사들의 경과와 구체적 내용, 그리고 출토 유물의 일본 반출과 관련된 사항은 규명되지 않았다(정인성 2017: 18).

1910년 일제강점이 시작되면서 조선 고적조사사업은 탁지부 건축소에서 조선총독부 내무부 지방국 제1과로 이관되었다. 이후 세키노 다다시, 야쓰이 세이이쓰(谷井濟一), 구리야마 준이치(栗山俊一)가 조사를 수행했고, 약식보고서인 『(彙報) 朝鮮遺蹟調査略報告』와 『朝鮮美術の研究 續編』 등으로 정리했다. 내용은 조사 유적 및 유구의 목록과 등급을 제시한 수준으로 학술성이 담보된 정식 발굴보고서는 간행되지 않았다. 사전조사 맥락에서 추진되었고,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와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의 조사는 조선총독부 학무부 편집과가 담당한 교과서 편찬을 위한 사료 조사라는 성격을 지녔다(早乙女雅博 1997). 현지조사는 1914년까지 매년 실시되었고, 1915년에는 보충조사가 있었는데,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조선총독부 주도의 조선고적조사사업이 추진되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13).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는 1912년 7월 13일 민간단체로 조직된 '평양명승구적보존회'의 결성이다. 평양부윤이 회장이며, 임원 구성은 행정당국 관계자와 재류 일본인 단체 간부, 재계 인사 등 일본인이 다수이고, 조선인도 일부 포함되었다(이순자 2007: 348~350). 평양명승구적보존회는 고적의 유지와 보존을 핵심사업으로 모란대 일대의 공원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 고적 조사, 그리고 평양의 역사와 전설에 관한 출판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일제강점기 동안 존치된 이 단체는 발굴 유구의 보존과 전시를 위한 평양부립박물관 건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3. 제2기 :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위원회 주도 발굴(1916~1921)

1916년 이후 조선총독부의 고적조사는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일반조사와 특별조사로 구분했다. 일반조사는 한사군 지역, 고구려시대 및 선사 유적과 유물이 대상이며, 황해도 · 평안남북도 · 경기도 · 충청도가 조사 범위였다. 당해 연도 조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 추진이 원칙이며, 조사 기간은 1916년 8월부터 1917년 3월까지였다. 특별조사는 시급히 연내 발굴조사가 요구와 박물관 진열품

수집 목적일 경우에 한해 실시되었다(이순자 2007: 45).

조선총독부는 1916년 4월 26일 고적조사위원을 임명하고, 같은 해 7월 「보존규칙」을 발표하였다. 훈령 제29호로 「고적조사위원회규정」(11조)을 공포하여, 유적 · 유물의 조사 · 보존을 위한 법령 정비와 전담기구 조직을 병행하였다. 고적조사위원회는 고적조사의 지정 · 처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과 보존 방침 결정을 핵심 임무로 하였고, 총독부의 고적조사비 지원을 바탕으로 조사 · 보존 · 등록 · 출판 사업을 추진하였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정무총감으로 하고, 위원은 총독부 관계국의 고등관과 전문가 중에서 임명되었으며, 그 밖에 다수의 촉탁을 두었다. 또한 총독부 고등관 가운데 간사를 임명하여 서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1기 고적조사 및 사료조사에 촉탁으로 참여했던 일본내 대학교수 다수가 위원으로 임명되면서, 조사 인력과 사업 운영에서 일정한 연속성이 확보되었다.

4. 제3기 : 조선총독부 고적조사과와 상설 행정조직의 발굴(1921~1924)

1921년 10월 11일 조선총독부 관보의 훈령에 따라 기존 종교과가 고적조사과로 개편 · 신설되었다(「동아일보」 1921.10.1). 고적조사과 업무는 박물관계 · 고적계 · 고사사(古社寺)계로 구분하였고, 발굴 업무는 고적계가 담당하였다. 고적계는 고적의 조사 · 발굴, 유물 수집, 실측을 비롯하여 고적의 보존 · 수리, 고적 등록 및 관련 사무, 고적 도서와 고적조사보고서의 편집 · 인쇄, 기타 고적 및 유물의 보존 사무를 관장하였다. 고적조사과의 사업 기획과 실제 업무 내용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총독부박물관 공문서 가운데 「大正12年度 古蹟調査科事業計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문서는 세부 사업을 열거하고 있으며, 작성 시점은 1922년 말 또는 1923년 초로 추정된다(김대환 2015: 128).

1923년 고적조사과의 사업 추진 내용에서 세키노 다다시는 낙랑군 및 고구려 유적 조사를, 도리이 류조는 평안남북도 지역의 선사 조사를,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는 함경남도의 고려시대 성지 연구를 담당했다. 또한 본부 위원은 대구 지역의 고분 발굴을 수행하였다. 1924년에는 낙랑고분군의 지속 발굴, 석총 조사, 경주 부근 고적조사 등이 계획되었으나(「조선일보」 1924.4.22.), 같은 해 11월 고적조사과의 폐지가 결정되어 학무국에 병합되었다(「동아일보」 1924.11.15.).

5. 제4기 : 외부자금이 투입된 발굴(1925~1930)

1924년 고적조사과가 폐지 후 고적조사는 총독부 예산이 아니라 외부 자금 또는 사적 자금에 의해 수행되는 사례가 등장했다. 1925년 평양의 낙랑 '왕우묘'로 불린 석암리 205호분과 1929년 경주 서봉총 남분 발굴이다. 석암리 205호분 발굴 경비는 호소카와 모리타쓰(細川護立) 후작이 동경제국대학에 제공한 기부금으로 충당되었으며, 조사는 동경제국대학 문학부가 주관하였다. 이 발굴은 일제강점기 전 기간을 통틀어 조선총독부 또는 총독부 외곽 단체인 조선고적연구회가 아닌 외부 기관이 주도한 사례이다.

외부 자금에 의한 발굴 허가와 단기간 조사가 가능했던 것은 총독에게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된 식민지 조선이었기 때문이다. 법령 및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권을 발휘할 수 있었다.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가 1963년에 발간한 책자에서는 석암리 205호분 발굴 책임자는 본인이라고 했다. 당시 조선총독부 수사관 신분이었으나, 자신 이력서에서 '왕우묘' 발굴에 참가하였다고 명시했다(藤田亮策 1963: 696). 해당 발굴의 추진과정에는 은사인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의 요청이 작용했다(김대환 2016: 121). 그러나 실질적인 조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경제대 문학부가 담당했음이 일반적으로 알려졌다.

1926년에는 대동강 남부 일대에 분포한 낙랑고분군의 현황이 지도화되었다. 오가와 게이키치(小川敬吉)와 노모리 켄(野守建)은 리(里) 단위로 고분의 수와 종류 등 분포 실태를 조사하고, 각 고분에 세부 번호를 부여하였다(국립중앙박물관 2021: 176). 이때 부여된 번호 체계는 이후 조사 · 연구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아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6. 제5기 : 조선고적연구회와 민관 복합 발굴 체제(1931~1945)

1930년대에 들어 조선총독부의 재정 긴축정책으로 고적조사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지자, 구로이타 가쓰미는 재벌과 귀족층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여 1931년 8월 경주와 평양에 '조선고적연구회'를 설치했다. 연구회 사무소는 조선총독부박물관 내에 두었고, 사업운영은 찬조하는 유지들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운영했다. 조선고적연구

회는 조선총독부의 기능을 사실상 대행하며 조선고적조사사업을 수행했다. 한편 조선고적연구회 규칙 제10조는 "사업 시행에 채집된 유물은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할 것을 제외하고는 평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유물의 처분 권한을 연구회 내부 의결에 부여함으로써 유구 · 유물의 일본 반출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조선고적연구회의 설립에 대한 전반적 기획과 대외적 조정은 구로이타가 담당하였고, 사업 전반의 실질적 총괄은 후지타 료사쿠가 수행하였다(오영찬 2011: 228). 또한 1931년 이후에는 아리미쓰 교이치(有光教一)가 실무 담당으로 등장했다. 이처럼 해방 이전까지 고적조사사업의 대부분은 조선고적연구회가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Ⅲ. 일제강점기 식민지적 위계가 적용된 발굴 전개 양상

1. 발굴 주체의 변천에 따른 발굴팀 구성 변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림 1]의 구분 기준에서 발굴은 제1기 세키노 다다시, 제2기 고적조사위원회, 제3기 조선총독부 고적조사과, 제4기 외부 자금, 제5기 조선고적연구회에 의해 진행되었다. 다만 제1기는 아직 발굴팀이 조직적으로 편성 · 운영되었다기보다 고건축 중심의 조사 성격이 강하고, 또한 일부 핵심 인물이 이후 시기와 중복된다는 점에서 본 장에서는 제2기와 제5기의 발굴팀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제2기에 해당하는 『(大正伍年度)古蹟調査報告』에 따르면, 1차 연도 발굴은 1916년 8월부터 1917년 3월까지 이다. 발굴조사위원은 세키노 다다시, 구로이타 가쓰미, 이마니시 류(今西龍),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등 4명과 보조 인력으로 촉탁 야쓰이 세이이치와 구리야마 슌이치(栗山俊一) 2명이었다. 제도와 사진 업무를 위해 박물관 직원 4명이 분속 동행하였고, 토목국 영선과 기수 1명과 평남도청 기수 1명이 추가로 보조에 참여하였다. 조사는 조사위원을 중심으로 4개 팀을 편성하여 팀별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朝鮮總督府 1917: 15~16).

세키노 다다시 팀은 1916년 9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평양 낙랑군과 고구려

[표 2] 고적조사위원회의 1916년 조사 일정(출처: 『(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를 기준으로 작성)

일시		関野貞	谷井濟一	일시		関野貞	谷井濟一	일시		関野貞	谷井濟一
10월	15	도쿄 출발		11월	11	정백리 갑총 발굴	경성 체재	12월	6	대동군 사족면 고분 조사	대동군 사족면 고분 조사
	16				12	송림총 발굴	경성 체재		7	휴지	휴지
	17	경성 도착			13	평양 이동	경성 체재		8	대동군 사족면 고분 조사	대동군 사족면 고분 조사
	18	경성 체재			14	석암리 발굴	평양 도착		9	대동군 사족면 고분 조사	대동군 사족면 고분 조사
	19	개성 조사			15	강연	대동강변 고분 조사		10	대동군 사족면 고분 조사	대동군 사족면 고분 조사
	20	평양 도착			16	석암리 9호분 발굴	대동강변 고분 조사		11	안학궁지 조사	이동
	21	대동강변 고분조사			17	석암리 9호분 발굴	대동강변 고분 조사		12	평양 성벽 조사	평양 성벽 조사
	22	대동강변 고분조사			18	석암리 1호분 발굴	대동강변 고분 조사		13	평양 정전 조사	평양 정전, 왜성 조사
	23	대동강변 고분조사			19	석암리 6호분 발굴	대동강변 고분 조사		14	경성 도착	용강군 온정 이동
	24	정백리고분 3기 실측			20	석암리 6호분 발굴	대동강변 고분 조사		15	예천 도착	용강군 황산 고분 조사
	25	정백리 발굴 착수			21	창광산 정전 조사	창광산 정전 조사		16	순흥 도착	용강군 황산 고분 조사
	26	왕평총 발굴			22	석암리 9호분 발굴	대동강변 고분 조사		17	부석사 도착	용강군 황산 고분 조사
	27	왕평총 발굴			23	발굴품 정리	대동강변 고분 조사		18	소수서원 조사	용강군 황산 고분 조사
	28	왕평총 발굴			24	발굴품 정리	고와편 분류		19	예천 도착	용강군 황산 고분 조사
	29	전자총 · 송림총 사굴			25	발굴품 정리	고와편 분류		20	예천 출발	용강군 황산 고분 조사
	30	발굴 순시			26	휴지	대동군 장수원,임원면 조사		21	진남포 도착	용강군 황산 고분 조사
11월	1	파괴총 관찰			27	숙천 이동	대동군 장수원,임원면 조사		22	용원면 갑총 조사	용강군 황산 고분 조사
	2	정백리 발굴			28	북창면 송계동 고분조사	대동군 장수원,임원면 조사		23	용강군 용월면 고분조사	용강군 용월면 고분 조사
	3	송림총 목과 관찰			29	평양 도착	대동군 장수원,임원면 조사		24	용강군 황산 고분 조사	용강군 황산 고분 조사
	4	정백리 을총 발굴			30	장수원 이동	대동군 사족면 고분 조사		25	낙랑고분 보고서 작성	약보고서 작성
	5	정백리 을총 발굴			31	대동군 사족면 고분 조사	대동군 사족면 고분 조사		26	평양 도착	평양 도착
	6	휴지		12월	1	대동군 사족면 고분 조사	대동군 사족면 고분 조사		27	주궁 도착	주궁 도착
	7	정백리 갑총 발굴	도쿄 출발		2	대동군 사족면 고분 조사	대동군 사족면 고분 조사		28	경성도착	경성 도착
	8	보산진 조사			3	휴지	휴지		29	총독부 박물관	총독부 박물관
	9	정백리 갑총 발굴	경성 도착		4	대성산성 조사	대성산성 조사		30	총독부 박물관	총독부 박물관
	10	정백리 갑총 발굴	경성 체재		5	대동군 사족면 고분 조사	대동군 사족면 고분 조사				

유적 · 유물 조사를 수행했다. 해당지역 유적 현황을 파악하고 자료 수집이 목적이었다. 낙랑고분 발굴은 정백리와 석암리 고분 10기였으며, 발굴조사는 약 한 달 내에 종료될 정도로 단기간에 수행되었다. 특히 석암리 9호분에서는 황금제띠고리 등 주요 유물이 출토되어 당시 조사 성과의 대표사례였다. [표 2]를 보면 이때 발굴조사는 짧은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유적을 조사하는 순회형 조사 방식이였고, 이는 유적을 빠르게 파악하고, 기초자료를 축적하는데 효과적이지만 유적을 층적으로 규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2차 연도 조사는 1917년 5월 7일에 개시되어 1918년 1월 14일에 종료되었다. 조사위원은 구로이타 가쓰미, 세키노 다다시, 이마니시 류, 도리이 류조, 야쓰이 세이이와 같은 5인이며, 측량 · 제도 · 촬영 업무를 위해 박물관 직원 4명, 토목국 직원 1명, 임시 고용인 1명이 동행하였다. 또한 통역을 담당하는 중추원 소속 직원 2명이 포함되었다. 1차 연도와 비교할 때 조사위원의 구성은 대체로 동일하나, 현장 운영과 기록 등 실무를 담당하는 조사 인력이 확충되었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조사는 조사위원이 팀장을 맡아 담당 지역과 대상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구로이타 가쓰미와 이마니시 류는 가야 유적을, 도리이 류조는 경상도 지역의 석기시대 유적을, 야쓰이 세이이치는 한사군 및 백제 유적을, 세키노 다다시는 고구려 유적을 각각 담당하였다.

한편 1918년에는 발굴조사원을 증원하여 조사원 6명을 편성하고, 각 조사원에게 측량 · 제도 · 촬영 등을 담당할 보조 인력 2명씩을 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도제국대학의 하마다 고사쿠(濱田耕作)와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를 가야지역 발굴에, 동경제국대학의 하라다 요시토(原田淑人)는 경주 일대 발굴 조사에 참여했다.

제5기에 해당하는 1930년대 이후의 조사는 조선총독부 외곽 조직인 조선고적연구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낙랑고분군 발굴조사 보고서가 소화 6년(1931)부터 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樂浪遺蹟(古蹟調査概報, 昭和10年度)』는 발굴의 추진과정과 조사 체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해당 조사는 조선고적연구회 평양연구소가 수행하였고, 한(漢) 낙랑군 시기 유적 조사는 일본학술진흥회의 지원을 받았다. 발굴 대상지는 [그림 2]와 [표 3]처럼 석암리 255 · 257호분, 정백리 4호분, 남정리 53호분, 도제리 20호분, 토성리 일대이다. 조사 계획은 1935년 6월부터 수립 · 추진되었으며, 조사에는 조선총독부 소속 오바 쓰네키치(小場恒吉)를 비롯하여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사무촉탁 노모리 겐(野守健),

[표 3] 1935년 발굴 공정표(출처: 『樂浪遺蹟(古蹟調査概報, 昭和10年度)』를 기반으로 작성)

명칭	구조	조사담당자							9월	10월
		小場	榧本	澤	田窪	梅原	駒井	野守		
석암리 255호분	전곽	■	■	■					■	■
석암리 257호분	목곽	■	■	■					■	■
정백리 4호분	목곽	■	■	■	■				■	■
남정리 53호분	전곽				■	■			■	■
도제리 20호분	전곽				■	■			■	■
토성지					■		■	■	■	■

사와 순이치(澤俊一), 가야모토 가메지로(榧本龜次郎)와 동경제국대학 문학부 부수(副手) 고마이 가즈치카(駒井和愛), 동방문화학원 동경연구소 조수 타키 료이치(瀧遼一), 조선고적연구회 촉탁 다쿠보 신고(田窪眞吳), 그리고 고고학자 우메하라 스에지가 합류했다. 조사단은 평양 소재 조선곡산회사 사택을 숙소로 제공받았으며, 조사원들은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집결하였다. 발굴은 9월 1일에 개시되어 약 2개월간 진행된 뒤 11월 상순에 종료되었다.

936년 조사 조직은 1935년 편제와 대체로 동일하다. 조사 운영은 후지타 료사쿠의 계획 하에 이루어졌으며, 오바 쓰네키치가 조사 주임으로서 조사 전반을 총괄·집행하였다. 또한 오바와 우메하라 스에지를 중심으로 한 인원들이 조사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하라다 요시토가 착수하여 중요한 성과를 거둔 토성지 발굴조



a: 1935년 발굴 위치도 | b: 석암리 255호분 전경 | c: 석암리 257호분 전경 | d: 정백리 4호분 전경 | e: 토성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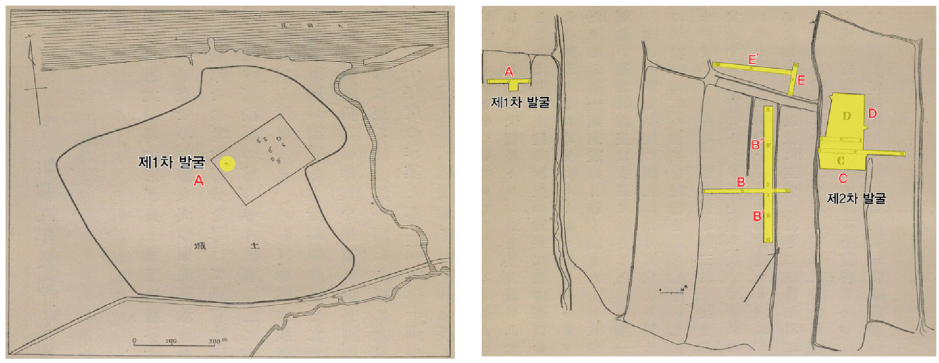
[그림 2] 1935년 발굴 조사 장소(출처: 『樂浪遺蹟(古蹟調査概報, 昭和10年度)』)

사도 지속되었다. 오바 쓰네키치와 우메하라 스에지는 전곽분(塼槨墳) 조사팀과 목곽분(木槨墳) 조사팀을 편성하는 한편, 별도로 토성 조사반을 조직하여 조사 대상을 병행하여 분담하였다. 하라다 요시토는 공무상의 사정으로 현장 조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주로 시찰 업무를 담당했다. 실무 운영은 오바 쓰네키치가 총괄하는 체계에서 고마이 가즈치카, 다쿠보 신고, 노모리 겐, 타키 료이치 등이 분담하여 수행하였다. 일정 수준의 협력 체계가 가능했던 요인 가운데 하나로, [그림 2a]에서처럼 각 조사 지점이 비교적 인접한 거리에 분포하여 상호 협업이 가능한 공간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2. 낙랑고분군 토성리 발굴 현장으로 본 발굴 과정

낙랑토성의 발굴 허가 후 측량을 통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본격적인 발굴을 전개했다. 『樂浪遺跡(古蹟調査概報, 昭和10年度)』의 내용에서 해당 발굴은 제1차와 제2차로 구분했다.

제1차 발굴은 1935년 4월 9일에 착수하였다. 조사단은 우선 구암(狗巖) 남측 관유지를 대상으로 조사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해당 지점은 지표면에서 약 10cm만 굴착해도 암반에 도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발굴을 중지하였다. 이후 남측 고분 및 서측 고분 일대를 시굴(試掘)한 결과, 조사 대상 구역을 고분과 밭고랑 일대로 확정하였다. 조사단은 먼저 북부에서 지세를 따라 동서 방향으로 길이 20m의 트렌치를 굴착하고, 이를 임시로 A트렌치로 명명하였다. 이어 4월 13일부터는 조사 지점을 A트렌치 동측의 묘지로 이동하여, 동측 경사면의 밭을 선정한 뒤 A트렌치와 거의 동



a: 제1차 발굴 위치　　b: 제2차 발굴 위치

[그림 3] 토성리 발굴(출처: 『樂浪遺蹟(古蹟調査概報, 昭和10年度)』)

일한 방향으로 폭 2m의 트렌치를 설정하였다. 해당 트렌치는 서측부터 2m 간격으로 구획을 나누어 조성되었으며, B트렌치로 칭하였다. B트렌치에서 규칙적으로 석재를 깔아 겹쳐 놓은 흔적이 확인되자, 조사단은 해당 구역의 폭을 4m로 확장하고 B트렌치에서 남북 방향으로 트렌치를 연장하였다. 이 연장 구간은 남측을 B′, 북측을 B″로 구분하였다. 이어 4월 20일부터는 B′-B″ 트렌치의 동측에 C트렌치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C트렌치는 동서 방향으로 연장되는 폭 2m, 길이 40m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내부에서 묘광(墓壙)이 확인되었다. 또한 C트렌치 북측에는 이에 평행하도록 폭 2m의 트렌치를 추가로 굴착하여 길이 20m에 이르게 한 후 D트렌치로 명명하였다. 조사단은 묘광이 확인된 밭 구역에 대해 전면적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C트렌치와 D트렌치 사이에 남아 있던 미굴착 구역을 연결하여 확장했다. 다만 제1기 조사 일정이 마무리될 무렵 밭의 파종 시기가 도래하여 해당 일대의 정밀조사는 제2기로 이월하고 1차 발굴을 종료했다.

제2차 발굴조사는 1935년 9월 6일에 재개되었다. 조사단은 전회에 중지했던 중앙 묘광 소재 밭의 조사를 지속하고자 했으나, 해당 밭의 농산물 수확이 완료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묘지 동북부에서 시굴을 실시했다. 그 결과 B′-B″ 트렌치와 평행하게 폭 2m · 길이 약 16m의 트렌치를 굴착하고, 여기에 직각으로 폭 2m · 길이 36m의 트렌치를 추가로 설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각각 E 및 E′ 트렌치로 명명하였다. 또한 9월 13일 이후에는 연속적으로 묘광이 확인되는 밭으로 조사 지점을 이동하였다. 이때 C트렌치 남변과 연결되는 밭에는 폭 8m · 길이 20m 규모의 구역을, D트렌치 북변에 접한 밭에는 20m 사방 구역을 각각 구획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그림 3b).

공정표를 보면 발굴 당시 북서쪽 고분은 전년도 도굴로 인해 전곽 일부가 노출되어 있었는데, 완형이라는 전제 아래 발굴을 개시하였다. 9월 4일 외형 실측을 완료한 뒤 5일부터 중앙부 굴착에 착수하였으나, 약 4m 깊이에 이를 때까지 뚜렷한 성과가 확인되지 않아 한때 목곽묘일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9월 8일에는 발굴갱 남서 모서리에서 파헤쳐진 흔적이 있는 분곽 일부가 확인되었고, 남측에 연도(羨道)를 추정하여 18일까지 하부 토사를 제거하였다. 그러나 인근에서 완형의 측실 천정 외면이 노출되면서, 당초 추정과 상이한 구조가 확인되었다. 이때 곽(槨)은 동서를 주축으로 하는 서향 구조로 파악되었으며, 조사단은 발굴갱의 확장을 결정하였다. 토사 제거를 지속한 결과 20일에는 양실 천정 부분의 외면이 확인되었다. 전실은 천정이 유실된 상태였고, 그 틈으로 유입된 토사가 양실 내부를 채우고 있으며, 후실은 토압으로 붕

괴된 상태였다.

이후 상반부 외형을 실측한 뒤 주변 굴착 범위를 확대하면서 토사를 제거했다. 난공사에 가까운 작업을 거쳐 10월 17일에는 봉분 정상 아래 약 9m 깊이에 위치한 곽상(槨床) 부근까지 접근하였다. 후실 내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이틀간 주칠(朱漆)로 칠한 곽의 잔해, 고경(古鏡) 조각 5점, 화폐류 등을 수습했다. 이어 전실로 조사 범위를 옮겼으며, 다수의 부장품을 확인하여 수습했고, 이는 약 7일이 소요되었다. 28일부터는 실측에 착수하여 30일에 이르러 작업을 종료하였다. 이후 되메우기는 11월에 다쿠보의 감독 아래 시행되었고, 토성리 발굴은 마무리되었다.

이처럼 발굴은 조선총독부의 허가 이후 수립된 초기 계획에 따라 추진되지만, 현장에서 확인되는 유구의 성격과 보존 상태 등 변동 요인에 따라 조사 지점의 조정과 굴착 범위의 확장이 수시로 결정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3. 발굴 현장 사진으로 본 일제강점기 발굴 도구

일제강점기 발굴 현장에서 사용된 도구는 기능과 용도에 따라 크게 네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발굴 대상 지역을 사전에 설정하고 조사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측량 · 구역 설정 도구, 둘째, 표토 및 퇴적층을 제거하기 위한 토양 제거 도구, 셋째, 유구와 유물의 윤곽을 노출하고 세부를 처리하기 위한 정밀 작업 도구, 넷째, 조사 성과를 기록하고 유구 · 유물의 상태를 유지 · 관리하기 위한 기록 · 측량 · 보존 도구이



a: 정백리 127호분 b: 낙랑연구소 현장 푯말 c: 석암리 200호분 개토제 d: 정백리 4호분 트렌치 측량

e: 정백리 8호분 측량도구 f: 남정리 116호분 기중기 g: 남정리 출토 목마 복원 h: 유리건판 사진 촬영

[그림 4] 낙랑고분군 발굴 현장 도구

(a: 건판 32605, b: 건판 13083, c: 건판 30590, d: 건판 12534, e: 건판 26753, f: 건판 10169, g: 건판 26634, h:건판 10075)

다. 도구 체계의 검토는 당시 발굴의 절차에서 사용되는 발굴 기술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개토제는 발굴 조사의 본격화 이전에 시행되는 제의 절차로, 물리적 굴착에 앞서 토지를 관장하는 신에게 지표의 개방을 고하는 의례 행위이다. 개토제 이후에는 현장 발굴을 위한 측량이 실시되었다. [그림 4d와 e]에는 평판측량에 사용되는 삼각대와 관측 대상 지점의 높이와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표식인 스타프(staff)가 확인된다. 또한 발굴팀이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실 기능을 담당하는 천막을 설치하였고, 발굴 구역의 경계는 새끼줄과 말뚝을 이용해 설정하였다. 발굴 유구가 무거울 경우에는 기중기 형식이 도입되기도 했고(그림 4f), 발굴된 유구는 실내로 옮겨져 복원 작업을 진행했다(그림 4g). 발굴 과정의 기록을 위해 유리건판 사진 촬영이 도입되었다(그림 4h).

본격적인 발굴은 지표를 굴착하는 작업에서 시작된다. 표토층이나 성토층처럼 두껍고 단단한 층을 신속히 파쇄하고 흙을 이완시키기 위해 곡괭이를 사용하였으며(그림 5a), 곡괭이로 풀어낸 흙을 퍼내거나 작업면을 평탄하게 정리할 때는 삽을 활용(그림 5b)하였다. 또한 유구의 경계나 벽체 주변 등 협소한 구간에서 토사를 정교하게 제거하기 위해 호미를 사용(그림 5c)하였다. 중간에 나무 뿌리 등의 제거를 위해 손도끼가 동원되기도 한다. 한편, 굴착 과정에서 발생한 사토를 발굴지 외부로 반출하기 위해 대나무 바구니나 지게 등을 이용하였다. 남정리 116호분의 경우 내부에 물이 고여 있어 배수기가 도입되기도 했다(그림 5f).



a: 정백리 4호분의 곡괭이 b: 석암리 255호분의 삽 c: 낙랑토성의 호미 d: 석암리 20호의 토사 제거

e: 도제리 50호의 지게 활용 f: 남정리 116호분의 배수 g: 정백리 17호분의 측량 h: 정백리 17호분의 측량

[그림 5] 발굴현장의 도구

(a: 건판 32606, b: 건판 12512, c: 건판 12327, d: 건판 19544, e: 건판 12475, f: 건판 10088, g: 건판 33069, h: 건판 32994)

땅을 굴착한 후에도 유구를 정밀하게 실측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된다. 발굴 현장에서는 방안을 설정하여 유구의 위치와 형태를 기록하고, 줄자 · 연필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축척으로 실측하였다. [그림 5h]는 '+'자로 구획한 방안사 위에 사람이 실측하기 위하여 구부린 모습이며, 왼쪽에는 실측할 때 쓰이는 줄자가 보인다. [그림 5g]는 측량 레벨을 확인하는 모습으로 일정 값에 맞게 방안사의 높이를 조절하며, 이때 함척으로 폴대를 사용했다.

이어 본격적인 발굴에서는 토양에 묻은 유구 표면과 미세한 토사를 제거하여 출토 상황을 최대한 손상 없이 드러내게 하기 위한 붓, 딱딱하게 굳은 흙을 미세하게 쪼개거나, 유구와 붙어 있는 덩어리 토양을 조금씩 분리할 때 사용한 목제 스틱, 유구 · 유물의 길이, 두께, 간격을 계측하여 평면도 · 단면도와 대조하기 위한 줄자 · 접이자 · 캘리퍼스와 도구 이외에도 유구물세척용 물그릇, 유구을 담기 위한 상자 등이 있다(그림 6 참조).



a: 정백리 127호분 발굴 도구　　b: 정백리 219호분 발굴 도구

[그림 6] 발굴 현장의 발굴 도구(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유리건판 사진)

일제강점기 발굴과 관련된 유리건판 사진은 발굴 현장에 참여한 인물의 복장과 소지 도구를 통해 당시의 역할 분담을 추정할 수 있다. 일본인 전문가들은 양복과 모자를 착용하고 측량 및 조사에 사용되는 도구를 갖춘 모습인 반면, 조선인 인부들은 저고리와 바지 차림으로 삽 · 곡괭이 · 지게 등 굴착과 운반에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러한 차이는 발굴 현장에서 조사와 기록을 담당하는 전문가와 굴착과 운반 등의 노동을 수행하는 현장 인력이 구분되어 있었다. 특히 복장과 도구의 차이가 인물의 위치 및 행동과 함께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유리건판 사

진은 발굴 현장의 분업 구조와 참여 주체 간 역할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는 당시 고고학적 조사가 전문적인 조사 체계와 실제적 발굴 노동력의 분리가 있었지만, 전문적인 분야는 일본인이 담당했음을 보여준다.

Ⅳ. 일제강점기 발굴 이후 낙랑 유구를 대하는 태도

1. 발굴 후 유물의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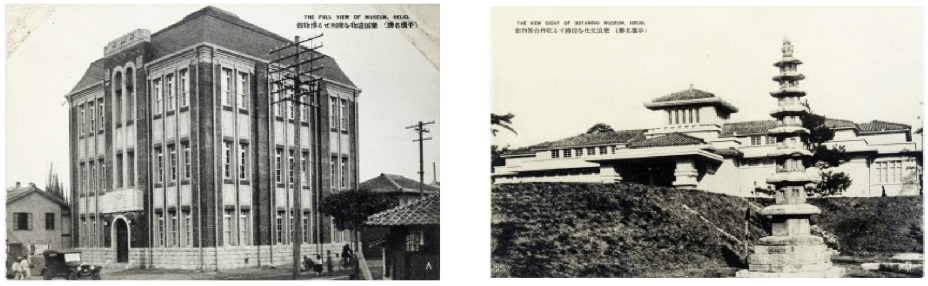
발굴 이후에는 유물과 유구의 보존 처리 과정이 진행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속기와 자기류는 현장에서 붓으로 세척한 뒤 박물관으로 이관하여 소장 및 전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유구의 경우에는 현장 보존 또는 별도의 보존 처리가 요구되었다. 발간된 보고서에는 유구 처리 방식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당시 신문기사에서는 현장 존치, 일정 수준의 보존 조치를 전제로 한 존치, 그리고 인골 처리와 관련된 보도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1932년 총독부박물관 촉탁 오바 쓰네키치가 발굴한 정백리 127호분에서 여성 인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인골은 '완전한 형태'로 경성제대 의학부 이마무라 유타카(今村豊) 박사의 교실에 보존하고 있다고 전한다. 기사에 따르면 이 인골은 젤라틴을 사용하여 고결(固結) 처리한 것으로 서술했다(「조선일보」 1932.10.29.). 1941년 『삼천리』 제13권 제11호에는 남정리 116호분(채협총)이 목곽이 거의 완전하게 원형이 보존되어 평양 박물관 뜰 안에 그대로 옮겨 놓았다고 했다.

1935년 조사보고서를 보면 발견된 유물은 조사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평양부립박물관 내 평양연구소, 경성총독부박물관, 그리고 도쿄와 교토 등지의 연구원들이 나누어 맡아 정리 작업한 후 상세한 보고서의 공표 순서였다.

낙랑고분에서 유구가 확인될 경우 유구의 성격과 가치에 대한 감정과 평가 절차가 뒤따랐다. 1925년 「동아일보」는 조선인의 시각으로 유구를 감정하지 못하고, 일본 내지의 학자들이 감정을 담당하는 현실을 한탄하는 논조를 전했다(「동아일보」 1925.12.4.). 더불어 '되무덤이에서, 낙랑고분의 출토품'이라는 제목으로 낙랑 유구를 연재 형식으로 소개했다(「동아일보」 1924.12.6.). '되무덤이'는 대동강 연안의 낙랑

고분을 지칭하던 당대 용례로, 낙랑 유적을 한(漢)계 문화의 수입 혹은 중국 문화의 연장선으로 위치시키는 인식과 결부되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명명 방식은 낙랑고분을 '조선의 자생적 문화'로 보기보다 외래 기원으로 설명하는 방향을 강화하며, 동시에 출토 유구의 해석 권한이 식민지 내부가 아니라 내지 학계로 수렴되는 지식 권력의 비대칭을 드러낸다.

1924년 신문 기사를 보면 낙랑고적 조사를 통해 확보된 유구는 조선총독부박물관과 평양부청 각각 보관하였으며, 자료의 목록화를 위해 '낙랑조사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했다(「조선일보」 1924.12.4.). 낙랑고분군 발굴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일반적 공개는 1928년까지는 평양부 욱정(旭町) 도서관 3층을 임시 진열실로 활용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그림 7a 참조). 이후 1931년 조선총독부박물관 분관 설치가 논의되었으나 재정 문제로 난항을 겪었고, 이에 지역 유지들을 중심으로 '조선총독부박물관 분관설치 기성회'가 조직되었으며 평양명승구적보존회도 협력하였다. 기성회는 건설 작업을 구적보존회에 일임하고, 건물 완공 후에는 부립박물관으로 개관한 뒤 조선총독부박물관 분관으로 이관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매일신보」 1933.8.31.). 박물관은 1932년 7월 18일 기공식을 거쳐 1933년 9월 18일 준공되었으며(그림 7), 전시 내용은 석기시대에서 금속문화 단계, 한대 낙랑군 문화의 전개, 고구려 흥왕기, 대동강변을 중심으로 한 신라 · 고려 · 조선 문화로 구성되었다. 1937년에는 '고구려고분벽화전'과 '청일전쟁자료전'을 개최하여, 평양이 낙랑시대뿐 아니라 고구려시대의 역사적 중심지이자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전을 각인시키는 '격전지'였음을 부각시켰다(이순자 2021: 356-358).



a: 도서관 2층 평양박물관　　b: 신축된 평양부립박물관

[그림 7] 평양부립박물관의 변천(출처: 일제강점기 엽서)

2. 발굴 이전 도굴과 발굴 이후 도난

1912년 9월 세키노 다다시가 벽화고분으로 알려진 강서 3기 고분을 조사했는데, 사전조사에서 이미 발굴되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早乙女雅博 1997: 62). 평양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식민 지배가 있기 전부터 일제는 조선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도굴꾼들에 의한 '불법적인' 문화재 약탈과 전문 학자에 의한 '합법적인' 고적 조사라는 측면에서 조선의 문화유산은 도굴과 훼손 위험에 노출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916년부터 5개년 고적조사사업에서도 도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1916년 조사 시기에는 당시 "낙랑고분에는 순금 보화가 무더기로 묻혀 있다."는 소문이 국내는 물론 일본인들 사이에 나돌면서 고려자기를 도굴하던 도굴꾼들이 대거 평양 일대로 몰렸다. "평양 부내에는 갑자기 낙랑열이 전염병처럼 만연되어 낙랑 명성이 천하에 떨쳐 퍼지게 되어(八田蒼明, 1934)"라는 내용처럼 발굴이 난굴로 전개되었다. 1925년 신문기사를 보면 고분도굴은 '평양에 들어온 일본인에게 알게된 조선인까지 확산'되었음을 지적했다(「동아일보」 1925.12.20.). 이에 세키노 다다시는 긴급 조치를 요청했다(關野貞 1941: 256).

> **도굴로 인하여 평양 방면의 발굴이 곤란**하였다. 작년 봄(1916)에 토민들의 도굴이 시작되어 그 출토품을 호사가들이 다투어 구하는 바람에 날로 도굴이 장려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미 50~60 의 고분이 모두 파괴되었으며, 우리가 작년 10월에 평양에 거할 때 이러한 출토 유물의 양이 많음과 진귀한 것을 보고 놀랐다. … **토민들의 도굴로 귀중한 유적이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 애석하여** 도 청, 부청 당국자에게 일층 취체(取締)를 엄중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총독부에 대해서는 속히 적당한 조사 방침을 취해줄 것을 진언했다.

당시 신문기사에서 낙랑고분군 도굴 보도는 빈번하게 확인된다(「경성일보」 1924.4.25.; 「경성일보」 1925.1.7.; 「동아일보」 1925.5.16.; 「경성일보」 1925.10.23.; 「조선일보」 1928.10.5.; 「조선신문」 1929.6.2.; 「조선일보」 1929.6.4.; 「조선일보」 1930.12.14.; 「조선일보」 1931.11.9.; 「조선신문」 1931.11.18.). 도굴 방지를 위해 발굴지에 기마순사를 배치하여 순찰을 강화했다는 기사도 있으며(「동아일보」 1925.6.11.), 도굴 과정에서 도굴꾼이 생매장되는 사건이 보도되기도 하였다(「조선일

보」 1928.10.5.). 1936년에는 신규 발굴 낙랑고분군도 내장품이 도굴된 상태였다고 했다(「조선신문」 1936.5.23.).

1941년 『삼천리』 제13권 제11호는 대동강 남부의 낙랑고분군에 대해 "도굴당한 것도 적지 않다"고 서술하였다. 세키노 다다시의 조사에서 낙랑고분에서는 금 · 은 · 동 제품 등 부장품이 다수 출토되었으나, 그 가운데 이미 50~60기의 고분이 도굴 피해를 입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당시 낙랑고분군이 당시 개성 지역과 유사한 양상으로 훼손될 것을 우려하여, 도청 및 부청에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 그러나 당국이 엄중한 단속을 시행하기 어려운 여건이었고, 오히려 관직에 있는 일부 인사들이 출토품을 대중보다 앞서 확보하려 다투는 사례가 나타났으며, 어떤 경우에는 발굴품을 경찰서에서 보관하던 중 소실되는 사건도 있다(「동아일보」 1920.6.13.; 「동아일보」 1924.8.17.). 이처럼 낙랑고분군은 도굴 여부에 따라 '도굴분'과 '미도굴분'으로 구분할 정도로 도굴 문제가 만연했고, 이는 고분 출토 유물이 고가에 불법 거래되는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일제강점기 평양 일대에서는 고분 도굴뿐만 아니라 사찰 및 고적의 문화유산 도난 사건이 빈번했다. 1930년대 신문 기사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당시 문화유산 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난다. 1931년 용강 보림사(寶林寺)에서는 200원 상당의 고종(古鐘)이 도난당했으며(「조선일보」 1931.8.29), 이듬해인 1932년에는 강서대묘(강서세무덤)의 철책과 철문을 파괴하고 침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고분 내부의 벽화는 훼손되지 않았으나 안내판이 사라지는 피해를 입었다(「조선일보」 1932.3.25.).

도난 피해는 시간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규모도 커졌다. 1934년 6월에는 다시 보림사에서 사원 개축으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제작된 지 600년이 넘은 금도금 목제 입상 2기가 도난당했고(「동아일보」 1934.6.29.), 같은 해 10월에 용강군 신덕사(神德寺)는 국보적 가치를 지닌 고려시대 황금 불상(당시 7만 원 상당 평가)을 도난당했다(「조선일보」 1934.10.9.). 앞선 보림사와 목제 입상 도난 사건 모두 언제 유물이 사라졌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할 만큼 방치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처럼 낙랑고분군을 비롯한 평양 일대의 주요 사찰과 고적들이 일상적 도굴과 도난의 위험에 노출되자, 1937년 평양부에서는 평양명승구적보승회에 국보적 가치가 있는 사적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는 경고성 통첩을 내리기도 했다(「조선일보」 1937.3.29.).

야외의 고적지에 비해 평양부립박물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받았다. 그러나 1938년 8월 21일에 평양부립박물관 소

[표 4] 평양부립박물관 도난품 목록

no	유구명	소유	추정가	no	유구명	소유	추정가
1	금동웅족낙랑출토품 (金銅熊足樂浪出土品二個) 2개	총독부	500원	12	개조금구 1개	박물관	20원
2	석암리 낙랑고분 출토 태족모형 (態足模型)	박물관	20원	13	철(鐵) 대리미 1개	제강씨 (諸岡氏)	30원
3	금동이(金銅耳)쉬쉬개 한쌍	박물관	50원	14	동(銅) 대리미 1개	평남교육회	100원
4	칠갑금구(漆匣金具) 1개	박물관	70원	15	철비(鐵轡)	박물관	10원
5	금동수면(金銅獸面)	박물관	30원	16	총구(銃具) 1개	박물관	5원
6	금동괴수장품(金銅怪獸裝置品) 1개	교도씨 (橋都氏)	100원	17	금동(金銅) 귀거리	중미씨 (中尾氏)	20원
7	금동 호형(虎形) 2개	교도씨 (橋都氏)	100원	18	금동 귀거리 1개	궁천씨 (宮川氏)	20원
8	금동병(金銅鉼) 4개	낙강씨 (諾岡氏)	20원	19	금동 귀거리 1쌍	박물관	30원
9	칠갑금구(漆匣金具) 5개	교도씨 (橋都氏)	300원	20	금 귀거리 1쌍	시전씨 (柴田氏)	300원
10	개조금구(蓋蚤金具)	시전씨 (柴田氏)	50원	21	금동흠(金銅飮) 1개	박물관	25원
11	개조금구 1개	중미씨 (中尾氏)	20원	22	금동식(金銅飾) 고리 두태도(頭太刀) 1개	박물관	30원

장품이 도난당했다. 범인은 박물관 지붕의 천장 유리판을 깨고 침입하는 대담성을 보였으며,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물보다는 금제품 22점만을 표적으로 훔쳐 갔다. 당시 언론과 학계가 가장 우려했던 것은 범인들이 유물의 시대적 · 학술적 가치보다는 금붙이로서의 중량을 기준으로 삼아, 처분을 위해 유물의 원형을 훼손할 가능성이었다(「동아일보」 1938.8.21.). 당시 도난당한 유물의 목록은 [표 4]와 같다(「매일신보」 1938.8.22.).

[표 4]에 명시된 도난품의 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피해 물품 중에는 조선총독부나 평양부립박물관, 평남교육회와 같이 공공성을 지닌 기관의 소장품도 있었으나, 평양 일대에 거주하던 일본인 개인이 소유한 유물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공공시설인 박물관에 일본인 거주민들의 개인 소장품이 기탁되어 전시 및 보관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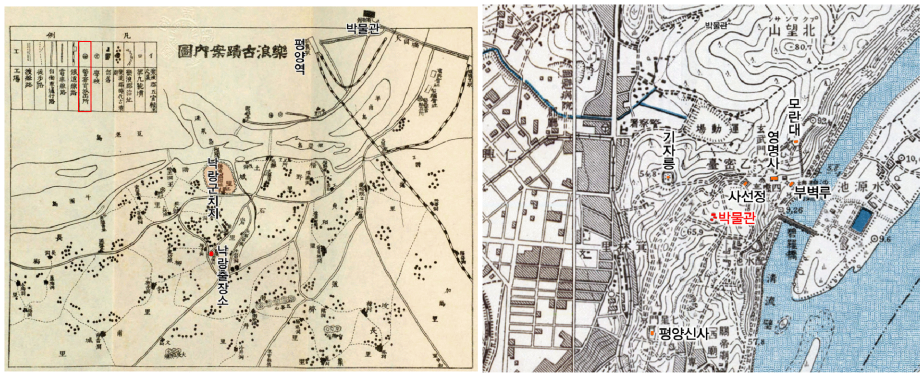
3. 도굴과 도난 방지를 위한 노력

1920년대에 이르러 낙랑고분 출토 유물의 가치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이 일대는 관람의 명소로 부상함과 동시에 금전적 이익을 노린 도굴의 표적이 되었다. 당시 고적 관리의 양상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지역에 전승되는 미신을 활용하여 도굴을 방지하려는 심리적 기제가 작동했음을 알 수 있다. 1928년에 발간된 『樂浪古蹟案內』의 '유물과 미신' 항목에는 낙랑군 치지(治址) 부근에 전해지는 세 가지 금기가 소개되어 있다. 성터나 고분의 벽돌 및 석재를 집으로 가져가 장식이나 건축 자재로 쓰면 온 가족에게 화(禍)가 미치거나 대가 끊기고, 고분이나 밭에서 나온 유물을 방 안에 들이면 악귀(惡魔)가 붙어 죽음에 이른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진귀한 보물이 있는 고분을 파헤치려 하면 벼락과 폭우가 쏟아지거나, 고분 속에서 아귀(餓鬼)가 나타나 기절하거나 미치광이가 된다는 소문도 전해졌다. 이는 낙랑 유적을 건드리면 '동티가 난다'는 민간 신앙을 일종의 감시 및 제재 기제로 삼아, 유구를 훼손해선 안 될 공유 자원으로 인식시키려 했던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 통제는 현실적인 생계나 자본의 논리 앞에서는 무력했다. 1923년부터 1925년 사이 빈번하게 발생한 도굴의 주범은 대부분 도덕이나 미신보다 당장의 생계가 시급했던 토막민이나 빈민층이었으며, 이들은 적발 시 징역이나 구류, 벌금형에 처해졌다. 나아가 1928년 즈음에는 평양의 일부 자산가들과 지팡이를 짚고 유적지를 유람하는 호사가들 사이에서 유물 수집 열풍이 불면서, 이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한 도굴이 성행했다.

이처럼 심리적 방어 기제만으로 지속 가능한 보존이 불가능해지자, 일제 당국은 공권력을 동원한 물리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대동군 토성면 낙랑고적 일대의 도굴이 심각해지자, 경찰 당국은 낮에는 기마순사를, 밤에는 사복 경관을 순찰에 투입하고 엄중한 처벌을 공표했다(「조선일보」 1925.4.3.). 1926년에는 고분 도굴 단속을 위해 낙랑연구소의 주도로 경관 파출소가 설치되기도 했으며(그림 8a 참조), 이 파출소는 1939년 8월에 이르러서야 폐지되었다. 이와 함께 법적 보호 장치도 강화되어, 1933년 8월 낙랑 발굴 고적 석표가 건립되었고, 1934년에는 고적보존회가 낙랑 토성지를 고적으로 정식 지정하기에 이르렀다(「동아일보」 1934.5.4.).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순찰만으로는 근본적인 사적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유적 보호와 지역민의 생존권이 토지 소유권이라는 현실적 문제에서 충돌했기 때문



a: 경관출장소 b: 평양박물관 위치

[그림 8] 낙랑고적 안내도(a: 『樂浪古蹟案內』, b: 미국 스탠포드 도서관)

이다. 1927년 4월 10일 자 평안남도가 조선총독부에 보낸 「낙랑사적의 보존에 관한 건」(학무국 공문 제235호)에 이러한 한계가 잘 드러난다. 이 공문에서는 석암리에 파출소를 특설해 단속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사적 보존을 위해서는 고분 일대에서의 경작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해당 사적들이 대부분 민간 소유의 경작지에 산재해 있어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이 컸으며, 토성리 일대에는 일부 외국인이 교회당 건물을 신축하려는 계획까지 추진 중이었다. 이에 당국은 영구히 보존할 핵심 구역은 국비를 투입해 토지를 매입하고, 현재 경작 중인 수확물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함과 동시에 지세(地稅) 등을 면제해 주는 타협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4. 공공의 박물관 전시와 유구의 사유화

오바 쓰네키치는 1916년 낙랑고분조사를 시작으로 1930년대까지 고분 발굴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석암리 20호, 52호, 194호, 200호분 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중요 칠기류는 도쿄로 이송되었다. 이후 도쿄미술학교 칠공과 교수인 롯카쿠 시스이(六角紫水)와 오바 쓰네키치의 수리 · 복원 작업을 거쳐 조선총독부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었다.

1928년 도서관 겸 박물관이 조성되기 이전부터 1933년 정식 박물관 개관 이후까지 유물 기증과 구입은 지속되었다. 일제강점기 공문서에 기록된 개인으로부터의 낙랑 유물 수집 내역을 연대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16년 야마다 가네지로(山田金次郎)가 토성동에서 발견된 낙랑 기와 등의 기증을 비롯하여, 1927년 무카이 나

리마사(向井業昌)로부터 낙랑 동인(銅印)과 왕부인신동인(王扶印信銅印), 1930년 이케우치 도라키치(池內虎吉)로부터 동제박산로 등, 1931년과 1934년 김성도(金聖道)로부터 낙랑전과 낙랑대윤장(大尹章) 등, 1937년 아베 센이치(阿部千一)로부터 낙랑상방경 등을 구입했다는 의결서가 확인된다.

1931년에 발간된 『平壤府立圖書館要覽』을 보면 도서관과 공존했던 박물관 진열품이 확인된다. 이때 겸용 박물관이었지만 각종 유물을 수집하고 진열할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고고박물관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1928년 8월 10일 개관 당초에는 부내(府內)의 고미술 애호가의 수집 소장품과 평안남도교육회 및 기타 부내 여러 학교 등의 소장품을 기탁받아 진열했다. 단지 평양 일대의 출토 유물뿐만 아니라 경주 신라의 유물 등의 기증이 있어 일반인에게 공개 관람을 제공했다. 1929년 4월 16일에는 다카마쓰노미야 노부히토친왕(高松宮宣仁親王), 9월 7일에는 칸인노미야 코토히토 친왕(閑院宮載仁親王)이 관람하여 당시 평양부립박물관의 위상을 알 수 있었다. 1930년 봄과 여름에는 오바 쓰네키치가 강서 고구려왕 고분벽화 모사를 완성하자, 같은 해 7월 6일 평양부립박물관 주최로 전람회를 열었는데 1,300여 명이 관람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진열품에는 부내 우치다 로쿠오(內田錄雄)와 토미타 신지(富田晋二) 등의 기증, 경주의 모로가 히데오(諸鹿央雄)와 미쓰나리 쇼이치(光成勝一)로부터 신라 와당과 전(塼) 등의 기증이 있었다. 진열장은 오사카마이니치신문 사장 모토야마 히코이치(本山彦一)가 기부했다. 당시 박물관 소장품과 기탁품은 2,065점이었으며, 관람실 진열은 680여 점으로 수시로 교체 전시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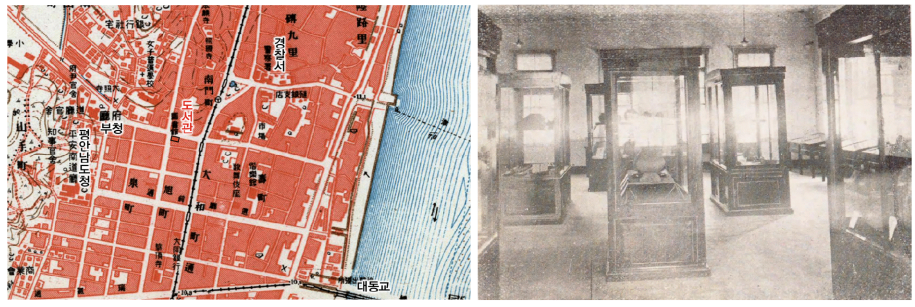
이러한 발굴과 복원 성과를 바탕으로 평양부립박물관은 '낙랑 문화의 전당'을 표방하며 1933년 10월 7일 개관했다(「동아일보」 1934.5.4.). 개관 이후 박물관의 공간 구성 방식은 1935년 신문 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당시 박물관 내부에는 화제가 된 전곽 고분과 목곽 고분을 나란히 복원해 두었으며, 입구 현관에는 한 쌍의 고구려 석구(石狗)를 배치했다. 내부 정면에는 경성에 거주하던 마쓰모토 요사부로(松本與三郎)가 기증한 조선 후기 '평양전도'와 비행 제6연대 사진반이 촬영한 평양 시가지 항공사진을 상하로 나란히 걸어, 관람객이 '신구(新舊) 평양'의 모습을 대비해 볼 수 있도록 연출했다. 좌측 방은 보온, 보습, 차광 시설을 완비한 칠기 보존실로 꾸며 왕우묘(王旰墓)와 채협총(彩篋塚) 출토품 등 칠기류를 전시 및 보관했다. 전시 기법에서도 기존의 연대순 진열 방식을 넘어 한사군(漢四郡) 관련 기본 자료들을 테마별로 진열했다. 이 과정에서 낙랑 문화를 보여주는 핵심 유물들은 파편 상태가 아

닌 복원 및 재현을 거친 상태로 전시되어 일반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자 했으며, 기와와 전돌 등도 다양한 종류를 전시했다. 우측에 연구실로 쓰이던 방은 벽화실로 개조하였는데, 향후 강서고분이 폐쇄될 경우 그 내부의 벽화 모사도를 진열할 계획(「조선신문」 1935.6.6.)이라고 했다.

이때 개인이 기증한 유물이 어떠한 경로로 소유하게 되었는지는 문서상으로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조선에서 교사로 재직하며 도굴과 골동품 거래를 일삼고 발굴조사 성과를 사유화한 뒤 귀국한 가루베 지온(輕部慈恩)의 사례(藤井和夫, 2024)로 볼 때, 평양의 낙랑 유구 역시 이와 유사한 불법적 과정을 거쳐 사유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유물 수집은 일제강점기 초기 박물관의 설립과 골동상들의 활약이 맞물리면서 더욱 기승을 부렸다. 요시쿠라 본노(吉倉凡農)가 1904년 간행한 『企業案內實利之朝鮮』에서 조선 진출 시 성공할 유망 업종 중 하나로 '골동상'을 꼽은 것은 당시 상황이 유추된다. 더불어 최대 서화 수집처로서 1909년 이왕가박물관의 등장 또한 유물 거래 시장의 팽창에 영향을 미쳤다.

평양 일대의 도굴 실태는 평양부립박물관장을 지낸 고이즈미 아키오(小泉顯夫)가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朝鮮」 제205호(1932년 6월)에 기고한 「古墳發掘漫談」에 묘사되어 있다. 그는 강제 병합을 전후로 일본인들이 조선의 시골 구석까지 진출하면서 본격적인 '도굴의 참상'이 빚어졌다고 회고했다. 일확천금을 노린 자들은 '금사발이 묻혀 있다', '정월 초하룻날이면 금닭이 묘 속에서 운다'는 전설을 좇아 고분을 금광 파듯 파헤쳤으며, 심지어 각지에 주둔하던 헌병들조차 이들과 결탁해 행동을 같이했다고 털어놓았다.

결과적으로 평양부립박물관에 소장된 낙랑 유물 중 상당수는 '도굴꾼-골동상-개인 수장가'로 이어지는 경로를 통해 사유화된 유물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 도서관 위치(1932년 지도)　　b: 박물관 진열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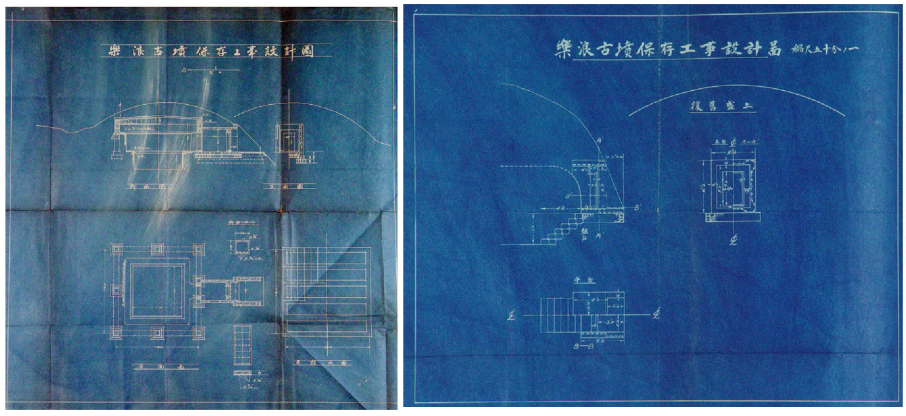
[그림 9] 평양도서관 및 박물관(a : 개인 소장, b: 『平壤府立圖書館要覽』)

즉, 박물관이 공적 전시를 명목으로 이러한 사적 소유물들을 매입하거나 기증받음으로써, 유물에 합법성을 부여하고 박물관 전시로 활용하는 구조가 작동했다.

5. 관광코스로서의 대상화된 발굴 현장

낙랑고분군의 발굴 범위가 확대되고 그 성과가 당대 매체를 통해 빈번히 보도되면서, 발굴 현장은 단순한 학술 조사 공간을 넘어 일반 대중이 관람하는 일종의 공개 장소이자 관광지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1926년 철도국이 '반도의 명승'이라는 기획 아래 각 지방의 후보지 42곳을 투표로 선정해 발표했을 때, 낙랑고분은 대표적인 명승고적으로 이름을 올렸다(「동아일보」 1926.5.8.). 발굴이 한창이던 시기에 조선총독이 직접 현장을 시찰(「경성일보」 1925.11.6.)한 사실 또한, 이곳이 식민 권력의 통치 담론 속에서 일정한 정치적 · 문화적 상징성을 획득해 가는 양상을 잘 보여준다.

발굴현장이 관광 명소로 부상함에 따라, 현장에서는 관람객을 맞이하기 위한 물리적인 보존 및 개축 공사가 수반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일제강점기 공문과 도면에 따르면, 도쿄제국대학 교수 구로이타 가쓰미의 주도로 발굴된 낙랑고분에 대한 보존 공사가 진행되었음이 확인된다. 1926년 2월 5일에 착공하여 3월 31일에 준공된 이 공사에는 일반 공사비와 내부 전등 설비를 포함해 총 1,588원 40전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당시 공사 내용 중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전실 상부의 조적조 지붕틀을 '콘크리트' 구조로 개축했다는 점이다. 시방서를 살펴보면 흙벽의 붕괴를 막기 위해 통로 벽의 기초와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했으며, 벽체에는 원활한 배수를 고려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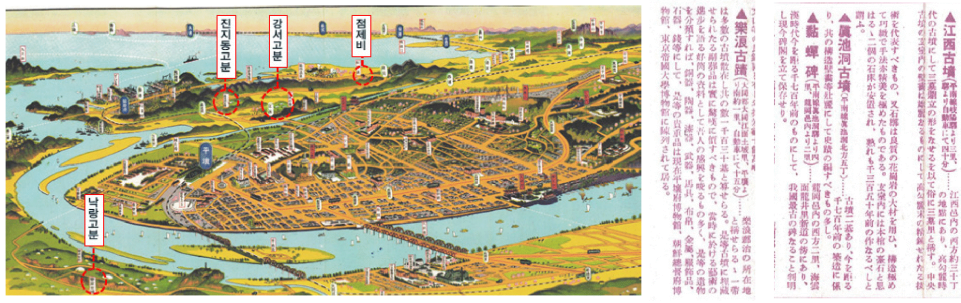
a: 1926년 낙랑고분 보존공사　　b: 1926년 낙랑고분 보존공사

[그림 10] 낙랑고적 보존공사(a: A064-004-17-001, b: A064-004-012-001)

파이프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는 벽돌 구조의 특성상 발생하기 쉬운 전도(顚倒)를 방지하기 위한 근대적 기술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무덤 입구에는 출입문을 달고 간판을 세웠으며, 주변에 울타리를 두르고 잔디를 식재했다(그림 10). 이러한 일련의 토목 및 정비 공사는 유적의 단순한 현상 유지를 넘어, 향후 관광의 대상지가 될 경우를 대비해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각적인 전시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목적 방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29년 요시다 하츠사부로(吉田初三郎)가 제작한 관광지도를 보면 평양 외곽에 위치한 강서고분군, 낙랑고분군, 진지동 고분 등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어 평양 방문자가 해당 유적을 관광 동선에 포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도에 덧붙은 설명은 낙랑고분군의 규모인 1,130여 기와 함께 북방계 청동 단갑(短甲), 철검 등의 출토를 언급하며, 이를 발달한 제동술(製銅術)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서술한다. 또한 팔각와당을 비롯해 동경, 옥류(玉類), 칠기, 무기, 마구, 금령(金鈴), 복식품, 철기, 포백(布帛), 각종 기물 등의 출토품이 조선총독부박물관과 동경제국대학 박물관에 전시되었다고 안내한다. 강서고분군에 대해서는 평남선 인근에서 자동차로 약 40분 거리이며, '삼묘리'로 불리는 3기의 고분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진지동 고분은 2기로 구성되며 약 1,700년 전 축조로 서술되어 있고, 점제비는 약 1,700년 전에 제작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비석'으로 소개했다(그림 11).

이와 같은 자료는 발굴 성과가 학술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관광과 홍보의 서사로 재구성되어 관광지로 대상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나아가 출토품이 박물관의 진열을 통해서만 소비된 것이 아니라 발굴 현장 자체가 방문을 유인하는 매력 자원으로 작동되었음을 시사한다.



a: 1929년 평양 관광지도　　b: 발굴조사된 장소에 대한 설명

[그림 11] 관광지도에서 등장하는 낙랑 유적(출처: 개인 소장)

당시 발굴 현장은 유람코스에 포함되기도 했는데, 신문기사를 보면 부내 기림리의 택시 운전수가 손님을 태우고 낙랑고분을 구경하러 간다고 서술했다(「동아일보」 1929.10.24.). 193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보다 제도화된 관광 동선 구상으로 확장된다. 대성산과 낙랑 고적을 순회하는 '유람 버스'를 부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평양부가 포기하였고, 민간 업체인 '킹택시'에게 인가되었다(「조선일보」 1937.1.14.). 이는 1930년대 평양부 차원에서 관광 사업이 기획될 정도로, 낙랑 유적지 일대가 상당한 방문 수요가 전제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평양 관광지에 대한 일부 서술은 기생 문화와 결부되어 재현되었다. 『모던일본 조선판』(1939)에 수록된 가토 다케오의 단편 「평양」은 평양을 방문한 '나'가 조선인 기생을 대동하여 낙랑유적 발굴현장을 찾는 장면을 묘사했다. 이때 발굴 현장이 관광적 경험의 장소로 호출되는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조선은 불가사의한 곳이야, 같은 땅속에 이렇게 2천년 전의 문화가 잠들어 있고 동시에 풍부한 지하자원과 함께 무한한 미래가 묻혀 있거든."** "그렇군요."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발굴되는 모습이 재미있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H군이 끄덕거렸다. 그리고 갑자기 옆에 있던 차××의 저고리 고름을 잡아당기며, "이봐, 자네. 이 하얀 가슴 속에는 무엇이 들었나?" "뭐라고요?" 더위에 헐떡이던 그녀의 가슴은 탄력있는 기복을 드러내고 있었다. "여기엔 무엇이 묻혀 있냐고? 그걸 발굴하는 것이 자네의 임무일세."

『삼천리』 제13권 제11호에는 매일신보 기자를 역임한 소설가인 정인택(鄭人澤)의 "낙랑고분군 기타"라는 기행문이 있다.

> **낙랑고분군의 발굴현장을 보려는것이 이번 여행의 목적인고로 이튿날 나는 박물관장에게 전화를 걸어 시간을 약속하고 아침 일즉이 숙사를 나왔습니다.** 아직 하늘은 찌뿌드하나 엷은 햇살까지 비치는 꼴이 구진 비는 아마 개일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곡(日穀) 앞에서 **「뻐스」를 내려 정백리(貞栢里)까지 걷기로 했습니다.** … **새로 파헤친 새빨간 흙 자리가 발굴을 시작한 고분**인가 봅니다. 그 중간에 조출한 천막이 보입니다. … 국보급의 일품이 출토하였다하나 내가 갔을 때는 아직 발굴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때이라 볼만한 것은 아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 대정 5년 이래 소천(小泉) 평양박물관장이 주체가 되어 매년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데 낙랑군치지(樂浪郡治址)

라는 토성을 중심으로 선형으로 축재된 고분군 총 수는 실로 **1,400 여기에 달하고, 현재까지에 발굴을 끝마친것은 겨우 100 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 발굴 대원들의 고심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낙랑고분군 발굴 현장이 여행의 목적이라고 적고 있다.이때 방문자들은 근대적 토목 기술로 통제되고 연출된 발굴 현장을 직접 경관으로 체험하면서, 일제가 부여한 낙랑고분의 역사적 가치와 발굴의 정당성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하게 되었다.

평양 낙랑고분군 유구의 공간 정치와 대중적 활용 기획은 일제강점 말기까지 지속되었다. 1944년 조선총독부 내부에서 발송된「낙랑토성의 공원 조성에 관한 건」이라는 공문이 이를 방증한다. 공원화 계획은 태평양전쟁 말기의 전황 악화 등으로 인해 실제 공사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고적을 대중적인 '공원'으로 조성하여 식민주의적 역사 인식을 일상적 경관 속에 뿌리내리려 했던 일제의 의도를 추정할 수 있다.

6. 대중서『낙랑고적안내』의 편찬과 낙랑 유물의 대중적 소개인 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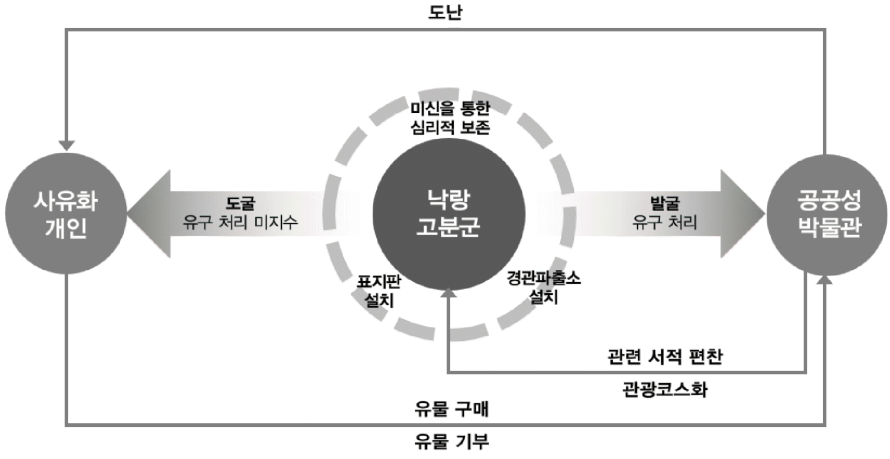
1928년에는 일반 대중과 관광객을 위한 해설서인『樂浪古蹟案內』가 발간되었다. 이 책은 김성도(金聖道)가 편집 겸 발행을 맡았으며, 사립삼혜학교(私立三惠學校)를 통해 발행되었다. 책의 서문에 밝힌 편찬 동기를 살펴보면 당시 고고학적 지식의 유통 구조를 짐작할 수 있다. 당시 낙랑군 유적과 유물에 관해서는 관련 분야의 권위자인 세키노 다다시의 조사 보고서를 비롯해, 도쿄제국대학 사학회(史學會)가 발간할 예정이던 1925년(대정 14년) 발굴 보고서, 평양공립고등여학교장 히로세 겐지(廣瀨憲二)의『歷史の平壤』등 다양한 전문 서적이 존재했지만, 이러한 학술 서적들은 가격이 비싸고 일반 대중이 쉽게 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이에 편저자 김성도는 낙랑고분을 찾는 일반 견학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기존의 전문 자료들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재편집하여 발간했다고 밝혔다. 조선사학회가 편찬한『朝鮮史講座』와 조선총독부의『樂浪郡時代の遺蹟』본문, 그리고 고분 조사 특별 보고서 중 핵심적인 내용을 발췌하여 수록한 것이다. 특히 이 안내서에는 각 유적지별 유물 목록뿐만 아니라 '낙랑유물배치도' 및 '낙랑고적안내도'가 도면으로 상세하게 삽입되어 있어, 현장을 찾은 관람객의 시각적 이해를 적극적으로 돕고자 했다.

대중서 발간과 더불어,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들은 그림엽서첩(그림 12)으로 제작

<table>
<tr><td rowspan="2"></td><td></td><td></td><td></td><td></td></tr>
<tr><td>b: 평양박물관 전경</td><td>c: 채협총목곽</td><td>d: 대정14년발굴
왕우묘출토(채문칠우)</td><td>e: 대동역부근 출토
(고구려 봉황문석대)</td></tr>
<tr><td>a: 엽서 표지</td><td>
f: 본 박물관 장(동제초두)</td><td>
g:대동군 미림리 출토
(석검)</td><td>
h:교도방수씨
(橋都芳樹氏) 출진
(금동제 마면)</td><td>
I: 부전진이씨
(富田晋二氏)
출진(동종)</td></tr>
<tr><td rowspan="2"></td><td></td><td></td><td></td><td></td></tr>
<tr><td>k: 낙랑군치지토성내출토
(낙랑 예관 와당,
부전진이씨 출진)</td><td>l: 고구려 석조 불좌상
(제강영치씨
(諸岡榮治氏) 출진)</td><td>m: 금동 인면금구
(교도방수씨 출진)</td><td>n: 녹유도아
(綠釉陶鵝,
제강영치씨 출진)</td></tr>
<tr><td>j : 엽서 표지</td><td>
o: 장의자손사룡경
(長宜子孫四龍鏡,
(교도방수씨 출진))</td><td>
p: 쌍유세문경범
(雙紐細文鏡範)
맹산군봉일면출토</td><td>
q: 고구려 귀와(鬼瓦)
대동군토성리 출토
(부전진이씨 출진)</td><td>
r: 효문묘
(孝文廟) 동종
(대동역 부근 출토)</td></tr>
</table>

[그림 12] 평양부립박물관 진열품 엽서



[그림 13] 낙랑고분군의 유구를 대하는 태도

되어 홍보되고 소비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엽서에 수록된 유물 설명에는 출토지뿐만 아니라 해당 유물을 전시에 제공한 기증자의 이름이 함께 명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낙랑 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지식이 대중화되는 과정 이면에, 유물을 사적으로 취득하고 향유하던 식민지 일본인들의 소유 구조가 긴밀하게 얽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낙랑고분군 발굴 이후 진행된 유구에 대한 태도에 개념도를 도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Ⅴ. 결론

일제강점기에 수행된 '발굴'은 단순한 물리적 행위나 기술적 차원의 수행을 넘어, 당대의 법령 및 행정 절차라는 '시대적 기준' 하에 조직되고 집행하여 활용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발굴 과정에 대한 분석은 근대 고고학의 형성 실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낙랑고분군을 대상으로 발굴 과정의 전개 양상과 활용 과정을 도출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말하는 일제강점기 '근대적 발굴'은 낙랑고분군 조사에서 발굴이 법령과 행정 절차에 의해 조직 · 집행된 체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낙랑고분군에 대한 발굴은 일제강점기 근대적 발굴이 적용된 대표적 사례로 위치지을 수 있다.

둘째, 일제강점기 낙랑고분군 발굴의 주체는 세키노 다다시 중심의 초기 조사를 시작으로, 제2기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위원회, 제3기 조선총독부 고적조사과, 제4기 외부 자금 투입에 의한 발굴, 제5기 조선고적연구회로 단계적으로 전환되었다. 발굴팀 구성과 운영을 제2기 고적조사위원회와 제5기 조선고적연구회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조사 계획 수립과 실무의 총괄은 대체로 일본인이 담당한 반면, 통역 및 현장 굴착을 수행하는 인부에는 조선인이 포함되는 위계적 분업 구조가 확인되었다.

셋째, 조사 절차는 유적 확인 및 기초 측량을 선행한 후, 시굴조사를 통해 유구의 부존 여부를 파악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후 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 구역을 재설정하고 굴착 범위를 확장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장비는 평판측량

기 · 폴대 · 줄자 · 대나무자 등 측량 기자재를 기반으로 하였고, 현장 토층 및 제반여건에 따라 곡괭이 · 삽 · 호미 · 손도끼 등 굴착 도구를 선별적으로 병용했다. 유물의 노출 및 세척을 위해 붓과 물 등의 소도구를 활용하였으며, 유구의 이송이나 기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중기 및 배수 펌프와 같은 지원 장비를 운용하였다.

넷째, 발굴 이후에는 일정 수준의 보존 처리가 이루어졌다. 고분의 경우 현장 보존을 원칙으로 보수 후 개방되는 사례가 확인된다. 출토 유물은 수리와 정리 과정을 거쳐 평양부립박물관과 조선총독부박물관 등에서 전시되었으며, 일부는 일본으로 반출되어 관리 · 수리되는 과정이 있었다.

다섯째, 낙랑고분군의 학술적 · 문화유산적 가치가 높아질수록 발굴 이전의 도굴과 발굴 이후의 도난 역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총독부와 조사기관은 도굴과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미신적 인식의 확산을 경계하는 한편, 발굴 현장에 울타리와 같은 물리적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는 노력을 진행했다.

여섯째, 낙랑고분군의 유물 보호와 관리의 강화는 한편으로 유적과 유물이 공공의 문화재로 제도화되는 과정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즉, 낙랑고분군은 박물관의 전시 대상이 되는 한편, 발굴된 유구와 유물의 일부는 사적 소유와 거래의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공공적 문화재와 사유화된 문화재라는 상반된 양상이 병존하였다.

일곱째, 낙랑고분군은 박물관이라는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관광지도와 안내서, 대중서적 등을 통해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소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발굴된 고분과 유물은 고고학적 조사 대상에서 관광과 교육의 대상으로 전환되었으며, 낙랑고분군에 대한 지식과 이미지는 전시 · 출판 · 관광이라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상화되어 재구성되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낙랑고분군의 발굴은 단순한 고고학적 조사에 그치지 않고, 유적의 발굴과 보존, 박물관 전시, 출판과 관광을 연계하여 낙랑이라는 역사적 공간을 식민지적 지식과 문화유산의 체계 속에 편입시키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오늘날의 발굴조사 체계는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절차적 틀을 일정 부분 계승하고 있으나, 문화유산을 다루는 제도적 원리와 그 성격에서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사유화와 도난이 빈번했던 일제강점기와 달리, 오늘날에는 출토유물의 국유화와 공공화를 통해 국가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적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남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체계에 대한 비교 연구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평양의 박물관을 직접 방문하여 일제강점기에 발굴되어 현재까지 소장 · 관리되고 있는 유물과 관련 자료를 실견하고, 분단 이후 남북한이 동일한 식민지기 발굴 유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계승 · 해석 · 관리해 왔는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문화유산 조사와 관리 체계가 분단 이후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어떻게 지속되거나 변용되었는지, 그리고 문화유산을 대하는 태도에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후속 연구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투고일 2026. 8. 20 | **심사완료일** 2026. 9. 19 | **게재확정일** 2026. 10. 1

참고문헌

강현숙, 2007, 「고구려 고분 출토 화당의 변천 연구」, 『韓國考古學報』 65.

高久健二, 2000, 「樂浪 채협총(南井里116號墳)의 埋葬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 그 復元的 硏究와 諸問題에 대한 考察」, 『考古歷史學志』 16.

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1909년 「朝鮮古蹟調査」의 기억 : 『韓紅葉』과 谷井濟一의 조사기록』, 국립유산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2021, 『日帝强占期 資料調査 報告 41輯, 평양 오야리 18~21 · 25호분 – 유구편』.

김은식, 2017, 「德興里壁畵古墳의 仙人 · 玉女圖 硏究」, 『동아시아고대학』 45.

김대환, 2015, 「조선총독부 고적조사 사업에서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의 역할-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의 검토」, 『한국상고사학보』 91.

김원용, 1986, 『한국고고학개설』 (제3판). 일지사.

모던일본사, 2020, 『잡지《모던일본 조선판 1939(완역)》』, 어문학자.

문화재청, 201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해설서』, 문화재청.

안정준, 2017, 「'덕흥리벽화고분'의 현실 동벽에 묘사된 '칠보행사도'의 성격 검토」, 『東北亞歷史論叢』 57.

양은경, 2021, 「흉노 고분 출토 칠이배 : 생산, 유통 그리고 용도」, 『한국상고사학보 114.

여호규, 2009, 「4세기 高句麗의 樂浪 · 帶方 경영과 中國系 亡命人의 정체성 인식」, 『韓國古代史硏究』 53.

오영찬, 2004,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樂浪古墳 資料와 硏究現況」, 『韓國古代史硏究』 34.

_____, 2008, 「낙랑과 고구려의 象形土器 : 부뚜막 明器를 중심으로」, 『丹豪文化硏究』 12.

_____, 2011, 「낙랑 금은제교구(金銀製鉸具)의 제작과 성격」, 『한국상고사학보』 72.

_____, 2013, 「낙랑칠기 연구와 식민지주의」, 『백제문화』 1(49).

오택현, 2022, 「평양 정백동 · 정오동 출토 낙랑 문자자료」, 『목간과 문자』 29.

윤용구, 2010, 「낙랑 · 대방지역 신발견 문자자료와 연구동향」, 『韓國古代史硏究』 57.

이경미, 1992, 「樂浪古墳出土 漆器에 對한 一考察」, 『한국상고사학보』 11.

이나경, 2021, 「무덤 부장품으로 살펴본 낙랑군의 교역 양상 검토 –평양 석암리 9호분 출토품을 중심으로」, 『동원학술논문집』 22.

이선복, 2012, 『고고학 개론』, 이론과 실천.

이순자, 2007,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유리, 2017, 「5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나타난 집안-평양 간의 교류관계 연구: 옥도리 벽화고분을 중심으로」, 『미술사문화비평』 8.

정인성, 2004, 「樂浪土城의「滑石混入系」土器와 그 年代」, 『충남대학교 百濟硏究』 40.

_____, 2006, 「관야정의 낙랑유적 조사 · 연구 재검토-일제강점기 고적조사의 기억 1」, 『호남고고학보』 24.

_____, 2011, 「일제강점기의 낙랑고고학」, 『한국상고사학보』 71.

_____, 2017, 「고고학으로 본 위만조선 왕검성과 낙랑」,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문』 41.

조우연 . 2008, 「4~5세기 중엽, 평양지역 소재 고구려 벽화고분의 묘향에 관한 시론-동암리벽화고분, 고산동 7 · 10호벽화고분의 묘향과 집안세력의 구 낙랑 · 대방지역 진출 시기에 대해」,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 19.

조윤재, 2017, 「古代 中國 鎭의 변용과 낙랑고분 출토 鎭의 성격에 대한 검토」, 『호서고고학』 36.

주경미, 2015, 「낙랑 고분 출토 금은제 공예품의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 15.

최병현, 2008, 「한국 고고학 60년의 회고와 전망」, 『한국고고학보』 67.

한국고고학회, 2010, 『한국고고학 강의』. 사회평론.

關野貞, 1941, 『朝鮮の建築と藝術』, 岩波書店.

東京帝國大學 文學部, 1930.『樂浪』 樂浪 昭和 5, 刀江書院.
藤田亮策, 1931,「朝鮮に於ける古蹟の調査及び保存の沿革」,『조선』 199.
私立三惠學校, 1928,『樂浪古蹟案內』, 平壤: 私立三惠學校.
田中修二, 1995,「入江波光の法隆寺金堂壁模寫に就いて」,『成城美學美術史』 3.
朝鮮古蹟研究會, 1934,『樂浪遺跡(古蹟調査概報, 昭和8年度)』, 朝鮮古蹟研究會.
朝鮮古蹟研究會, 1934,『樂浪彩篋塚』, 朝鮮古蹟研究會.
朝鮮古蹟研究會, 1934,『樂浪彩篋冢: 樂浪王光墓. 1-2』, 朝鮮古蹟研究會.
朝鮮古蹟研究會, 1935,『古蹟調査報告. 第1册. 平安南道 大同郡 大同江面 梧野里 古蹟調査報告』, 京城 : 朝鮮總督府.
朝鮮古蹟研究會, 1935,『樂浪遺跡(古蹟調査概報, 昭和9年度)』, 朝鮮古蹟研究會.
朝鮮古蹟研究會, 1936,『樂浪遺跡(古蹟調査概報, 昭和10年度)』, 朝鮮古蹟研究會.
朝鮮總督府, 1917,『(大正伍年度)古蹟調査報告』, 京城: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1919,『古蹟調査特別報告. 第1-2册』, 京城: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1920,『(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京城: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1927,『古蹟調査特別報告.第4册.樂浪郡時代の遺蹟(本文)』, 朝鮮總督府.
早乙女雅博, 1997,『關野貞の朝鮮古蹟調査: 精神のエクスペディシオン』, 東京大學出版社.
八田蒼明, 1934,『樂浪と傳說の平壤』, 평양연구소.
平壤府立博物館, 1931,『平壤府立圖書館要覽』.
Brian Fagan, 2004, *Archaeology*: A Brief Introduction. Routledge.
Bruce G. Trigger, 2006, *A History of Archaeological Thought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Colin Renfrew & Paul Bahn, 2016, *Archaeology*: Theories, Methods and Practice (7th edition.), Thames&Hudson.

[신문 및 잡지]
「경성일보」 1924.4.25.
「경성일보」 1925.1.7.
「경성일보」 1925.10.23.
「경성일보」 1925.11.6.
「동아일보」 1920.6.13.
「동아일보」 1921.10.1.
「동아일보」 1924.8.17.
「동아일보」 1924.11.15.
「동아일보」 1924.12.6.
「동아일보」 1925.5.16.
「동아일보」 1925.6.11.
「동아일보」 1925.12.4.
「동아일보」 1925.12.20.
「동아일보」 1926.5.8.
「동아일보」 1929.10.24.

「동아일보」 1934.5.4.
「동아일보」 1934.6.29.
「매일신보」 1933.8.31.
「조선신문」 1929.6.2.
「조선신문」 1931.11.18.
「조선신문」 1935.6.6.
「조선신문」 1936.5.23.
「조선일보」 1924.4.22.
「조선일보」 1924.12.4.
「조선일보」 1925.4.3.
「조선일보」 1928.10.5.
「조선일보」 1929.6.4.
「조선일보」 1930.12.14.
「조선일보」 1931.8.29.
「조선일보」 1931.11.9.
「조선일보」 1932.3.25.
「조선일보」 1933.2.21.
「조선일보」 1934.10.9.
「조선일보」 1937.3.29.
『삼천리』 제13권 제11호, 1941.
『「朝鮮』 제205호, 1932.6.

http://doi.org/10.20292/jcich.2026.51.141

Excavation of the Nangnang Tombs in Pyeongyang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Use of Its Findings

Kim, Hai-Gyoung(Assistant Professor, Konkuk University)
Kim, Sun(Senior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of Buddhist Cultural Heritage)

The investigation of the Lelang (Nangnang) tombs in Pyongyang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s a representative case of "modern excavation," carried out systematically under legal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The agents of excavation shifted in stages: from Sekino Tadashi's early surveys, to the Committee for the Investigation of Ancient Remains and the Section for the Investigation of Ancient Remains under the Government-General of Chōsen, to excavations funded from outside sources, and finally to the Society for the Study of Korean Antiquities (Chōsen Koseki Kenkyūkai). The excavations followed a hierarchical division of labor in which Japanese staff directed the research and fieldwork while Koreans took part mainly as laborers. Investigators defined the scope of each survey through mapping and test trenching, then extended the excavation as features were confirmed. Excavated artifacts were repaired and organized, then displayed at institutions such as the Pyongyang Municipal Museum and the Government-General Museum of Chōsen, and some were taken to Japan and kept there. As the scholarly value of the tombs gained attention, looting and theft also increased, and the Government-General and the investigating bodies tightened physical control, for example by erecting fences. Even as protection and management were strengthened, however, two processes coexisted: the incorporation of features and artifacts into public cultural heritage, and their privatization as objects of private ownership and trade. The Lelang tombs were

also introduced to the public through museum exhibitions, tourist maps, guidebooks, and popular publications, and so became objects of viewing and consumption. This objectification of cultural heritage served to spread the colonial definition of Lelang imposed by Japan. In short, the excavation of the Lelang tombs went beyond archaeological investigation: by linking excavation, preservation, exhibition, publication, and tourism, it incorporated Lelang into a system of colonial knowledge and cultural heritage.

Key words : Nangnang Tombs; Investigation of Ancient Remains, ,Modern Excavation, Looting and Theft, Objectification of Cultural Heritage